



中國 道家・道敎思想이 韓國 古代思想에 미친 影響
- 특히 《三國史記》・《三國遺事》에 보이는 記錄을 中心으로

저자 李錫浩
(Authors)

출처 [도교문화연구 1](#), 1987.12, 71-91 (21 pages)
(Source) [Journal of The Studies of Taoism and Culture 1](#), 1987.12, 71-91 (21 pages)

발행처 [한국도교문화학회](#)
(Publisher) Korean academy of taoism and cul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588579>

APA Style 李錫浩 (1987). 中國 道家・道敎思想이 韓國 古代思想에 미친 影響. 도교문화연구, 1, 71-91.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183.106.106.***
 2021/12/02 09:3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中國 道家·道教思想이

韓國 古代思想에 미친 影響

——특히 《三國史記》·《三國遺事》에

보이는 記錄을 中心으로——

李 錫 浩

目	次
I. 緒 論	2. 百濟
II.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보이는 道家·道教思想	3. 新羅
1. 高句麗	III. 結 論

I. 緒 論

道家와 道教은 엄밀히 따지자면 구별되어야 한다.

道家란 黃老之術이라고도 부르는데 《漢書》〈藝文志〉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道家의 源流는 大體로 史官에게서 나왔는데, 成敗·存亡·禍福과 古今의 道를 仔細히 記錄하고, 그런 뒤에 要諦를 잡고 根本을 잡아 淸虛함을 스스로 지키고 卑弱함을 스스로 지닐 줄 아니, 이는 임금이 南面하는 術策이다.

道家者流, 蓋出於史官, 歷記成敗存亡禍福古今之道. 然後知乘要執本, 淸虛以自守, 卑弱以自持, 此人君南面之術也.

곧 매사에 요령을 장악하고 근본을 捕捉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淸心寡慾해서 物慾에 구애를 받지 말아야 事理를 洞察할 수 있어 無爲之治의 理想的인 統治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72 道敎와 韓國思想

따라서 道家 思想의 中心要諦는 無爲自然·恬淡虛靜을 모토로 삼는다고 하겠다. 곧 일체를 자연의 섭리에 따라 人智를 버리고 生死를 초월하여 悠悠自適하면서 自然의 物化를 따라야 全生保眞하게 되고, 정치를 하여도 理想的인 無爲之治를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儒家의 思想과는 반대로 否定의 論理를 내세우는 道家思想은 中國思想의 兩大山脈을 이루어 놓았다. 그리고 道家思想은 자연히 現實參與란 면에서는 소극적이라 자연의 품안으로 기어드는 隱遁思想이 짙다 하겠다.

이런 道家思想에다 이전부터 있어 온 神仙 思想·陰陽 五行思想을 가미하여 長生不死의 旗幟를 내어걸고 宗教를 만들어 낸 사람이 바로 後漢의 張道陵이다.

後漢 明帝(在位 58~74) 때 中國에 印度로부터 佛敎가 전래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중국 고유의 宗教가 발생할 氣運이 돋았을 때라, 이런 기회에 張道陵은 道家의 思想을 업고 符水治病의 術을 시작했다. 곧 특수한 符籙을 물에 넣고 그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呪術로서, 일종의 자기 암시에 의한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병이 나을 경우에는 謝禮條로 五斗米를 내어 놓게 하고, 이를 저축하여 사회 사업에 썼기 때문에 세칭 이를 五斗米敎 또는 米賊이라고도 불렀다.

또 같은 明帝 때 于吉이 曲陽이란 섬물가에서 얻었다는 《太平淸領書》(一名《太平經》)를 聖書로 삼고, 張角이 일으킨 太平道가 있었는데, 이것도 道敎의 일맥으로 본다. 이 張角의 무리들은 漢王室을 타도하려고 亂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를 黃巾賊의 亂이라고 한다. 그러나 黃巾賊의 亂은 곧 平定되어 太平道는 쇠약해졌지만, 張道陵의 五斗米敎는 그의 子孫인 張衡·張魯로 이어가며 江西省의 龍虎山을 據點으로 해서 敎團을 만들고 僞經까지 만들면서 道敎의 터전을 점차로 닦아 나아갔다. 그리하여 三國時代 曹操는 그의 仲子 曹宇를 張魯의 딸에게 장가들게 하고 張魯의 五子를 列侯에 封하기까지 하였다.

張道陵에게서 시작한 道敎는 後漢·西晉 間的 魏伯陽과 葛洪·陶弘景 등의 敎理 確立으로 그 理論的인 근거를 마련해 나아갔다. 더우기 佛敎 經典을 본받아 無數한 道經을 만드니 후에 총괄해서 이를 《道藏》이라 한다.

또 道敎의 地位를 佛敎 위에다 올려놓고 그 始源이 오래됨을 밝히기 위하여 西晉 때 王浮는 《老子化胡經》까지 만들어 내었다. 그래서 道敎와 佛敎의 싸움은 시작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三武一宗의 佛敎 彈壓이 역사적으로 유명하다.

곧 道教勢力的 확장은 北魏의 道士 寇謙之가 北魏의 武帝를 움직여 佛敎를 누르고 道教를 발전시켰고, 다음 張賓이 北周의 武帝를 움직여 佛敎를 탄압했으며, 후에 趙歸眞이 唐나라 武宗의 신임을 받아 道教를 전파하고 佛敎를 排斥하게 하였다. 다음 後周의 世宗이 또 佛敎를 압박하였는데, 이때는 道教도 수난을 당했으며, 道教가 개입되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이를 佛敎史에서 三武一宗의 受難이라 한다.

唐나라는 李淵이 세운 나라로서 老子의 本名이 李耳이므로 老子를 조상이라 하여 道教를 존중하였다. 특히 玄宗은 절대적인 道教 信奉者였고, 武宗은 佛敎를 탄압하고 道教를 높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仙丹을 잘못 먹고 죽기까지 하였다. 당시의 유명한 道敎學者로는 李筌·遜思邈·司馬承禎·張志和·羅隱·譚峭·無能子·天隱子 등이 있고, 道教 세력을 확장하는 데 공이 컸던 劉進喜·葉法善·趙歸眞 등이 있었다. 그 뒤 五代와 北宋時代에는 孫光庭·呂純陽·張君房 등이 유명하고, 실천가로는 林靈素·徽宗皇帝 등이 유명했다.

그러나 道教도 南宋에 와서는 南北宗의 兩派로 갈리었다. 곧 北宗은 全眞敎라 부르고 南宗은 正一敎라 한다. 또 北宗은 둘로 갈리어 南北 兩派가 되었다. 北派의 敎祖는 重陽子 王嘉(一名 王壽)로서, 그는 純陽子 呂喦에게서 道를 배웠고, 邱處機·馬丹陽·王玉陽·譚長眞 등이 모두 그의 제자였다. 그리고 南派의 敎祖는 劉海蟾으로, 그도 純陽子 呂喦의 제자였었다고도 하고, 또는 呂喦의 恩師인 正陽子 鍾離權의 제자였었다고도 한다. 劉海蟾의 敎理는 紫陽 張伯端·石翠 玄泰·紫賢 薛道光·泥丸 陳楠·海瓊 白玉蟾·鶴林 彭耜로 이어져 내려갔다.

한편 南宗의 正一敎는 곧 張道陵의 天師道를 이어나간 교파로서, 1276年(至元 13)에 元 世祖가 張道陵의 後孫이며 第 36代 天師인 張宗演을 嗣漢天師로 封하고, 그 자손들이 세습하여 江南의 道教를 統括하되 주로 龍虎山·閩山·茅山을 무대로 활약했다. 張宗演은 자기 아들 張與楨에게 天師의 지위를 계승시켰는데, 張與楨는 그의 아우 張與材에게 자리를 내어 주어 그가 第 38代 天師가 되니, 1304年(大德 8)에 元나라 成宗은 張與材를 正一敎主로 封했다. 그래서 正一敎란 명칭이 생긴 것이다.

그리하여 張道陵의 子孫을 잇는 正一敎가 舊派라면, 全眞敎는 新派라 할 수 있는데, 舊派가 좀 초월적이라면, 新派는 좀 현실적이라 할 것이다. 그간의

특출한 존재로 드러났던 三國時代 吳나라의 于吉 仙人派, 晉나라 葛仙公派 (葛玄·葛洪 系統), 梁나라 陶弘景, 漢末의 魏伯陽 계통을 잇는 丹家派 등은 같은 道敎에 속하면서도 그 이론과 방법이 약간씩 달랐었다.

이 외에 金나라 末年의 道士 劉德仁이 開創한 眞大敎가 있고, 金나라 天眷 (1138~1141) 年間に 道士 蕭抱珍이 만든 太一敎가 있으며, 또 武當道가 있는데 이것은 湖北省 武當山의 道士 때문에 생긴 이름으로 宋나라의 陳搏과 明나라의 張三丰이 모두 여기에서 修道했었다.

그리고 北京 白雲觀에 所藏되어 있는 《諸眞宗派總簿》를 보면 그 이외에도 여러 파가 있었다.¹⁾

老子 莊子를 업고, 또 儒敎의 학설과 卜筮·陰陽五行·神仙方術 및 기타 저급한 迷信까지 곁들여 만든 道敎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련을 쌓아 神仙이 됨으로써 永生不死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양했다.

대체로 수련과 方術을 쌓아야 했다. 修練에는 慾心을 없애고 心性을 바로잡으며 精·氣·神의 三寶를 補養하며, 方術로는 辟穀·服餌·調息·導引·房中術·誦經·祈禳·符籙·呪文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道敎도 宗教이니만큼 다른 宗教와 마찬가지로 道德을 強調하여 積德을 해야 했다.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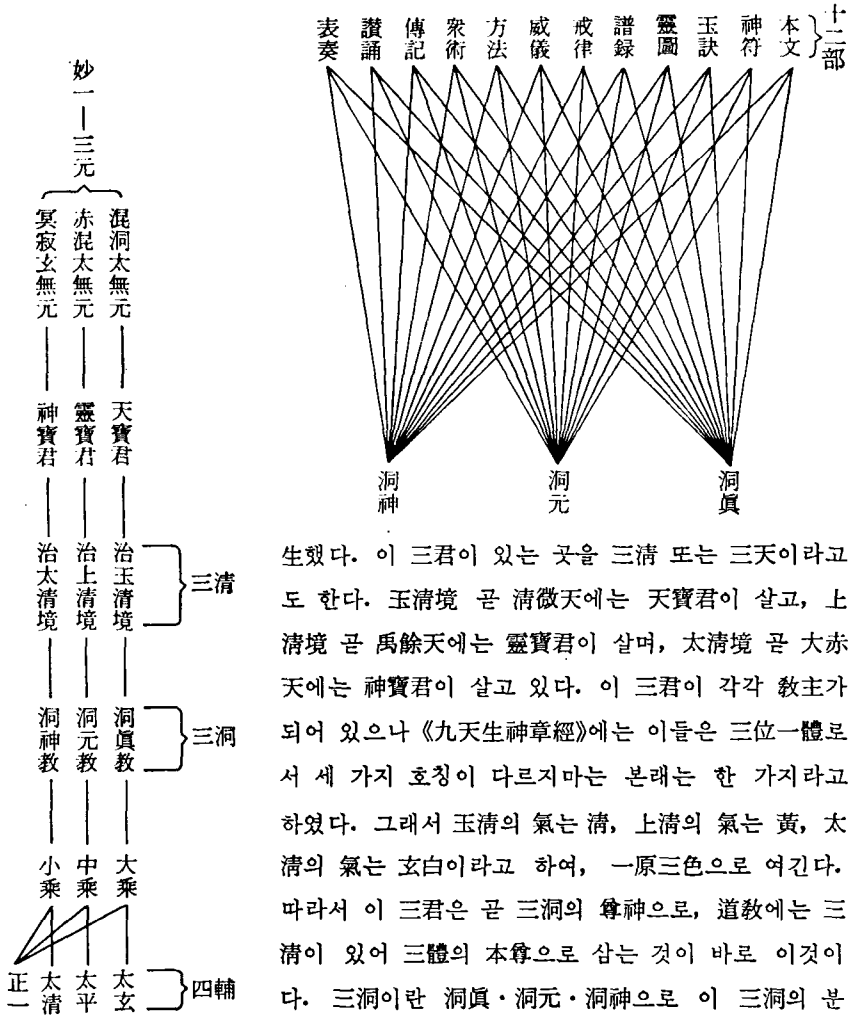
또한 道敎의 聖經을 道經이라 하는데 《太上感應篇》《陰騭文》《功過格》이 기초적인 入門書이며, 점차로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公式의인 讀經의 經典이 있다. 이런 道經을 總合하여 《道藏》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佛敎의 佛藏 곧 一切經을 본떠 만든 것이다. 唐나라 開元年間に 만들어져 3744 卷 규모의 《道藏》이던 것이 그 뒤 散失되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여 지금도 그와 비슷한 숫자의 《道藏》이 남아 전한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道經을 요약하여 道敎의 宇宙觀을 보면 이러하다.

一切는 一로부터 生하고 一이 나뉘어 三元이 되고, 三元이 三氣가 되고 三氣가 三才를 生하고, 그것에서 萬物이 갖추어진다. 三元은 第一混同太無元, 第二赤混太無元, 第三冥寂玄通元이다. 이 混同太無元으로부터 天寶君이 化生하고, 赤混太無元으로부터 靈寶君이 化生하며, 冥寂玄通元으로부터 神寶君이 化

1) 周紹賢, 《道家與神仙》 p. 65 參照.

<丑>

《道藏》의 分類



生했다. 이 三君이 있는 곳을 三清 또는 三天이라고도 한다. 玉清境 곧 清微天에는 天寶君이 살고, 上清境 곧 禹餘天에는 靈寶君이 살며, 太清境 곧 大赤天에는 神寶君이 살고 있다. 이 三君이 각각 教主가 되어 있으나 《九天生神章經》에는 이들은 三位一體로서 세 가지 호칭이 다르지마는 본래는 한 가지라고 하였다. 그래서 玉清的 氣는 清, 上清的 氣는 黃, 太清的 氣는 玄白이라고 하여, 一原三色으로 여긴다. 따라서 이 三君은 곧 三洞의 尊神으로, 道教에는 三清이 있어 三體의 本尊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三洞이란 洞眞·洞元·洞神으로 이 三洞의 분

류가 道經의 목차가 되어 洞眞部·洞元部·洞神部の 명칭이 생겼다. 洞神部는 大乘, 洞元部는 中乘, 洞眞部는 小乘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道教를 믿어 성공하여 인간 이상이 되는 것을 하위로부터 세어서 6段階가 欲界, 그 위의 18段階가 色界, 또 그 위의 4段階가 無色界로서, 합쳐 28天界는 고너는 없고 歡樂은 있지만 生死는 免할 수 없는 계급으로 無色界 위의 4階位를 種民天이라 한다. 이 種民天에는 生死와 三災가 미칠 수 없는 곳이다. 種民天으로

부터 네번째 위를 三境이라고 하는데, 太上老君天師太淸境·九仙上淸境·九眞玉淸境으로서 이것들은 어느 것이나 善美의 世界이다. 그 위의 최상의 世界가 大羅天으로 그 안에 過去元始天尊·現在太上玉皇天尊·未來金闕玉晨天尊이 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洞眞部는 元始天尊으로부터 나오고, 洞元部는 太上道君으로부터 나오며, 洞神部는 太上老君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元始天尊이 곧 神이라는 것이다.

이를 본면서 《道藏》의 분류를 三洞 四輔 十二部로 나누는데, 이를 圖示하면 표와 같다.²⁾

II.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보이는 道家·道敎思想

三國은 처음에 자체적으로 鼎立하여 나라를 세워 독자적인 文化를 창조해 나갔으나 곧 中國大陸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中國의 漢字文化의 전래와 더불어 儒敎가 수입되었고, 儒敎의 영향은 급속도로 커져 王號·衣服·科擧 등 中國의 文物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었다. 따라서 新羅는 788年(元聖王 4)에 讀書三品科를 두니 이것이 우리 나라 科擧制度의 시초이다.

그뒤 印度에서 발생한 佛敎가 中國을 통하여 들어왔다. 高句麗는 372年(小獸林王 2)에, 百濟는 384年(枕流王 1)에, 新羅는 527年(法興王 14)에 佛敎가 들어오거나 國家的으로 공인되어 佛敎文化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中國에서 늦게 발생한 道敎는 高句麗 末年에 唐나라로부터 들어왔다.

지금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道家·道敎 思想에 관한 기록이 단편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아 道敎도 中國文化의 유입과 더불어 들어온 것은 사실이나 儒佛의 세력 때문에 크게 빛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보이는 道家·道敎에 관한 기록을 나라별로 종합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高句麗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2) 幸田露伴, 《道敎思想》 p. 16, 50 參照.

[1] 乙支文德이 于仲文에게 詩를 주어 말하기를, “鬼神과 같은 計策은 天文을 다하였고, 至妙한 計算은 地理를 通達하였도다. 싸움에 이겨 功勞가 이미 높았으니, 滿足할 줄을 알아 그만두겠다고 말하기를 바라오” 라고 하였다.

文德遣仲文詩曰, 神策究天文, 妙算窮地理. 戰勝功既高, 知足願云止.³⁾

[2] 榮留王 7年(624)에 唐나라 高祖는 刑部尙書 沈叔安을 派遣하여 王을 上柱國遼東郡公高句麗王으로 册封하고 道士에게 命하여 元始天尊像 및 道法을 가져 오게 하여, 老子를 講論하게 하므로, 王과 國民들이 이를 聽講하였다.

8年(625)에 王은 使臣을 唐나라에 보내어 佛敎와 道敎의 敎法을 배우겠다고 청하니, 唐나라 高祖는 이를 許諾하였다.

七年春二月. 遣刑部尙書沈叔安, 策王爲上柱國遼東郡公高句麗國王. 命道士以天尊像及道法, 往爲之講老子. 王及國人聽之.

八年. 王遣人入唐, 求學佛老敎法, 帝許之.⁴⁾

[3] 寶藏王 2年(643) 3월에 淵蓋蘇文은 王에게 아뢰기를, “三敎는 比喩하자면 술의 발과 같아, 하나라도 빠져서는 아니됩니다. 지금 儒敎와 佛敎는 아울러 繁盛하고 있으나 道敎는 아직 盛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른바 天下의 道術을 갖추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請컨대 使臣을 唐나라에 보내어 道敎를 求하여다가 國民들에게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하니, 大王은 깊이 그러히 여겨 글을 올려 要請했다. 그래서 唐太宗은 道士 叔達 등 8名을 보내고, 겸하여 老子《道德經》을 下賜하니 王은 기뻐하여 절을 빼앗아 그들을 묵게 했다.

二年春三月. 蘇文告王曰, 三敎譬如鼎足, 闕一不可. 今儒釋並興, 而道敎未盛. 非所謂備天下之道術者也. 伏請遣使於唐, 求道敎以訓國人. 大王深然之, 奉表陳請. 太宗遣道士叔達等八人. 兼賜老子道德經. 王喜, 取僧寺館之.⁵⁾

[4] 寶藏王 9年(650) 6월에 盤龍寺의 普德和尚은 國家가 道敎를 信奉하고 佛敎를 믿지 않는다고 하여 南으로 完山(全州) 孤大山으로 옮겨 갔다.

九年夏六月. 盤龍寺普德和尚以國家奉道, 不信佛法, 南移完山孤大山.⁶⁾

[5] 淵蓋蘇文이 王에게 말하기를, “듣자니 中國에서 三敎가 아울러 流行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만이 道敎가 아직도 없으니 唐나라로 使臣을 보내어 求하여 오기를 要請합니다” 하므로, 王은 드디어 글을 보내어 請하였다. 그래서 唐나라에서는 道士 叔達 등 8名을 派遣하고 겸하여 《道德經》을 下賜하니, 이에 절을 取하여 그들을 묵게 하였다.

蘇文告曰, 聞中國三敎並行, 而國家道尙缺, 請遣使於唐求之. 王遂表請. 唐遣道士

3) 金富軾, 《三國史記》卷第 44, 乙支文德條.

4) 金富軾, 《三國史記》卷第 30, 高句麗本紀 第 8 建武王條.

5) 金富軾, 《三國史記》卷第 21, 高句麗本紀 第 9 寶藏王 上條.

6) 金富軾, 《三國史記》卷第 22, 高句麗本紀 第 10 寶藏王 下條.

叔達等八人，兼賜道德經。於是取浮屠寺館之。⁷⁾

[6] 高句麗本紀에 高句麗 末期인 武德(唐 高祖 年號, 618~626)·貞觀(唐 太宗 年號, 627~649) 年間に 國民들이 五斗米敎를 다투어 信奉하니 唐 高祖가 이 消息을 듣고, 道士를 시켜 元始天尊像을 보내어와서 《道德經》을 講論케 했다. 그래서 王과 國民들이 이를 들으니 곧 榮留王 卽位 7年인 武德 7年(624) 甲申이었다. 이듬해(625)에 使者를 唐나라에 보내어 佛敎와 道敎를 배우기를 要求하자 唐나라 高祖는 이를 許諾했다. 寶藏王이 卽位하자(貞觀 16年 壬寅年, 642), 또 함께 三敎를 일으키려 하니, 當時 寵愛를 받던 宰相 淵蓋蘇文이 王에게 달래기를, “儒敎와 佛敎는 다 盛하나 黃冠(道敎를 말함)은 盛하지 못하니, 唐나라로 特使를 보내어 道敎를 要求하십시오” 라고 했다. 그때 普德和尚이 盤龍寺에 있었는데 左道(道敎를 말함)가 正道에 匹敵하여 國運이 危殆로울 것을 걱정하고 여러 번 王에게 諫하였으나 들어 주지 아니하므로, 神力으로 方丈(楸)을 날려 完山州(現 全州) 孤大山으로 옮겨 가 사니, 곧 永徽元年(650) 庚戌 6月이었다.

[또 本傳에는 乾封 2年(667) 丁卯 3月 3日이었다.] 얼마 후에 高句麗는 亡하였다. [總章 元年(668)에 高句麗가 亡하니 19年의 距離가 있다.]

金[淵蓋蘇文]이 아뢰기를,

“술에는 세 밤이 있고, 나라에는 三敎가 있습니다. 臣이 보건대, 國內에는 儒敎와 佛敎만 있고 道敎가 없으므로 나라가 危殆롭습니다”

하니, 王은 그리히 여겨 唐나라에 알리어 要請했다. 이에 唐나라 太宗은 叔達 등 道士 8人을 보내니 王이 기뻐하여 楸를 道觀으로 삼고 道士를 높여 儒士의 위에 다 앉혔다. 道士들이 國內를 돌아다니며 有名한 山川을 鎮壓할 때, 옛 平壤城의 地勢가 新月城이라 하여, 道士들이 南河의 龍에게 呪文으로 命하여 거기에다가 더 城을 쌓아 龍堰城이라 이름하고, 秘訣을 지어 龍堰堵 또는 千年寶藏堵라 하였다.

麗季武德·貞觀間, 國人爭奉五斗米敎, 唐高祖聞之, 遣道士, 送天尊像, 來講道德經. 王與國人聽之. 卽第二十七代榮留王卽位七年, 武德七年甲申也. 明年遣使往唐, 求學佛老. 唐帝(謂高祖也)許之. 及寶藏王卽位(貞觀 16年壬寅也), 亦欲併興三敎. 時寵相蓋蘇文, 說王以儒釋並熾, 而黃冠未盛. 特使於唐道敎. 時普德和尚住盤龍寺. 憫左道匹正, 國祚危矣. 屢諫不聽. 乃以神力飛方丈, 南移于完山州(今全州也)孤大山而居焉. 卽永徽元年庚戌六月也(又本傳, 乾封二年丁卯三月三日也). 未幾國滅(以總章元年戊辰國滅, 則計距庚戌十九年矣.)

金奏曰, 鼎有三足, 國有三敎. 臣見國中, 唯有儒釋, 無道敎, 故國危矣. 王然之, 奏唐請之. 太宗遣叔達等道士八人, 王喜以佛寺爲道館, 尊道士, 坐儒士之上. 道士等行鎮國內有名山川, 古平壤城勢新月城也. 道士等呪勒南河龍, 加築爲滿月城. 因名龍堰城. 作讖曰龍堰堵. 且云千年寶藏堵,⁸⁾

7) 金富弼, 《三國史記》卷第 49, 列傳 第 9 蓋蘇文條.

8) 一然, 《三國遺事》卷 3, 興法 第 3 寶藏奉老 普德移庵條.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1]의 乙支文德이 于仲文에게 준 詩에서 結句 ‘知足願云止’의 ‘知足’은 老子的 말이니, 이는 道家思想이 이미 수입되어 널리 유행했었음을 알려 주는 것이고, 기타는 모두가 道교 수입에 관계되는 기록이다. 이를 차례대로 정리해 본다.

624년에 唐나라에서 일방적으로 高句麗에 元始天尊像과 道法을 보내서 老子를 강론하니 高구려의 王과 國民들이 傾聽했으며, 또 翌年인 625년에는 高구려에서 唐나라에 道敎의 敎法을 배우겠다고 요청하니 唐나라 高祖는 이를 허락하였다.

다음 643년 3월에 淵蓋蘇文이 寶藏王에게 아뢰어 唐나라에 가서 道敎의 수입을 요청하게 했으므로, 唐太宗은 道士 叔達 등 8명을 보내고 老子《道德經》도 보냈으므로 寶藏王은 기뻐하고 절을 빼앗아 이 道士들을 머물게 하였다.

그리하여 道敎가 크게 繁昌하자, 650년에 佛敎의 名僧 普德和尚은 道敎 信奉에 불만을 품고 全州로 이동했다.

곧 高句麗의 道敎는 624년부터 650년 사이 約 30年間에 걸쳐서 中國 唐나라로부터 들어와 급속도로 발전하여 佛敎가 밀렸음을 알 수 있다.

2. 百濟

近仇首王 때에 百濟軍이 高句麗軍을 쳐서 北쪽 水谷城(平山)의 西北方에 이르렀다. 그때 장군 莫古解가 請하기를, “일찌기 道家의 말을 들으니, ‘滿足할 줄 알면 辱되지 않고, 그칠 줄을 알면 危殆롭지 않다’(老子 第44章)고 합니다. 지금 所得도 많은데 어찌 더 많은 것을 求하려 합니까?” 라고 하므로 太子는 그 말을 옳게 여겨 中止하였다⁹⁾는 기사가 있다.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보이는 百濟의 道家·道敎 思想의 記錄은 이것 밖에 없다. 그래서 中國의 史書 《周書》에는, “百濟는 僧尼와 寺塔은 많으나 道士는 없다”고 하였다.¹⁰⁾

以上の 기록으로는 百濟에는 道家 思想은 유행했었으나, 道敎는 수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周書》의 기록은 외국인인 본 내용이므로 자세하고 정확한 기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道敎 思

9) 金富弼, 《三國史記》卷第 24, 百濟本紀 第2 近仇首王條. “將軍莫古解請曰, 「嘗聞道家之言, ‘知足不辱, 知止不殆’ 今所得多矣, 何必求多?’ 太子善之止焉.”

10) 《周書》卷 49, 列傳 第41 異域 上 百濟條. “百濟…僧尼寺塔甚多而無道士.”

想은 유입되었으면서 신라와 고구려에 다같이 유행되었던 道敎가 백제에만 들어오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李能和도 日人 學者 黑板勝美의 說을 이용하여 백제에도 분명히 道敎가 유행했었고, 日本의 道敎는 百濟의 學者 王仁·阿直岐 등을 통하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¹¹⁾

3. 新羅

新羅에도 道家·道敎 思想이 들어와 유행되었는데, 특히 神仙 思想이 많이 유입되었다, 이를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서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1] 孝成王 2年(738) 4월에 唐나라 使臣 邪疇이 老子《道德經》 등의 書籍을 王에게 바쳤다.

夏四月 唐使臣邪疇以老子道德經等文書獻于王.¹²⁾

[2] 元聖王 4年(788) 봄에 처음으로 讀書 三品을 定하여 出身하게 하였는데, 《春秋》·《左氏傳》·《禮記》·《文選》을 읽고 그 뜻에 能通하고, 겸하여 《論語》·《孝經》에 밝은 者를 上品으로, 《曲禮》·《論語》·《孝經》을 읽은 者를 中品으로, 《曲禮》·《孝經》을 읽은 者를 下品으로 定했다. 만약에 五經·三史·諸子百家書에 博通한 者는 特探하기로 하였다.

四年春 始定讀書三品以出身。讀春秋左氏傳，若禮記，若文選，而能通其義，兼明論語·孝經者爲上，讀曲禮·論語·孝經者爲中，讀曲禮·孝經者爲下，若博通五經·三史·諸子百家書者超擢用之。¹³⁾

[3] 金仁問의 字는 仁壽이니 新羅 第29代 太宗 武烈王의 次男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學問을 힘써 儒家의 冊을 많이 읽고, 아울러 莊老(老莊)와 浮屠(佛)의 學說까지 두루 涉獵하였다.

金仁問 字仁壽，太宗大王第二子也，幼而就學，多讀儒學之書，兼涉莊老浮屠之說。¹⁴⁾

[4] 金后稷이 眞平王의 狩獵이 지나침을 諫하는 말 가운데 이런 句節이 있다.

老子는 말하기를 “멋대로 말을 몰아 달리면서 하는 사냥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만드다”고 했습니다.

11) 李能和, 《韓國道敎史》第7章 百濟 道家 思想 參照.

12) 金富軾, 《三國史記》卷第9 新羅本紀 第9 孝成王條.

13) 金富軾, 《三國史記》卷第10 新羅本紀 第10 元聖王條.

14) 金富軾, 《三國史記》卷第44 列傳 第4 金仁問條.

老子曰, 「馳聘田獵, 令人心狂.」¹⁵⁾

여기에서 金后稷은 老子《道德經》第 14 章의 句節을 이용하여 眞平王의 지나친 사냥을 말리고 있다,

[5] 唐나라에서 《道德經》 등을 갖추어 보내니 大王이 禮를 갖추어 받았다.

...德經等, 大王備禮受之.¹⁶⁾

[6] 眞興王 37 年(576) 記事에 花郎의 역사를 설명하는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崔致遠의 鷲郎碑序文에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는 玄妙한 道가 있다. 이를 風流라 하는데 이 教를 設置한 根源은 仙史에 詳細히 실려 있거니와, 사실 이는 三教를 包含한 것으로, 모든 民衆과 接觸하여 이를 教化하였다. 또한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는 父母에게 孝道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忠誠을 다하니, 이는 魯나라 司寇의 趣旨이며, 無爲之事에 處하고 不言之教를 行하는 것은 周나라 柱史의 宗旨이며, 모든 惡한 일을 하지 않고 모든 착한 일만 받들어 行하는 것은 竺乾太子의 教化다” 라고 했다.

崔致遠鷲郎碑序曰,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設教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教, 接化群生. 且如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化也.¹⁷⁾

[7] 新羅 景德王이 表訓 스님에게 附託하여 天帝에게 빌어 아들을 낳게 해 달라고 했다. 表訓이 天帝를 만나 景德王의 要求를 傳하자, 天帝는 王의 八字에 말밖에 없다고 對答했다. 그러나 군이 아들을 要求하여 마침내 딸이 되려던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이 커서 惠恭王이 되었는데, 이 王은 여자가 될 運命으로서 男子가 되었기 때문에, 돌날로부터 王位에 오를 때까지 恒常 婦女가 하는 짓만 했다. 곧, “비단주머니를 차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道士들과 戲弄하기도 했다”[好佩錦囊, 與道流爲戲.] 라고 기록되어 있다.¹⁸⁾

[8] 新羅의 金庾信은 나라를 건지기 위하여 道術을 배웠다. 《三國史記》에 다

15) 金富弼, 《三國史記》卷第 45 列傳 第 5 金后稷條.

16) 一然, 《三國遺事》卷第 2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條.

17) 金富弼, 《三國史記》卷第 4 新羅本紀 第 4 眞興王條.

18) 一然, 《三國遺事》卷第 2 讚普婆郎歌條.

음과 같은 記錄이 있다,

眞平王 建福 28年(611)에 公의 年齡이 17歲였다. 그는 高句麗·百濟·靺鞨이 國境을 侵略하는 것을 보고, 慷慨하여 賊을 討伐할 뜻을 품었다. 그래서 홀로 中嶽(八公山)의 石窟로 들어가 齋戒하고 하늘에 告하며 盟誓하기를, “敵國은 無道하여 尙양이나 호랑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疆土를 侵略하여 騷亂하게 하므로, 거의 해마다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저는 한낱 보잘것 없는 臣下로서 재주와 힘을 헤아리지 않고 禍亂을 平定코자 하오니 오직 하늘은 굽어 살피시와 저에게 힘을 빌려 주소서” 라고 빌었더니, 4日만에 뜻밖에 한 노인이 褐衣를 입고 나타나서 말하기를, “이곳은 毒蟲과 猛獸가 많아 무서운 곳인데, 貴公子는 어찌하여 홀로 와 있는고?” 라고 물었다. 金庾信이 대답하기를, “어르신네께서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韓術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니 그 노인은, “나는 일정한 住所가 없고, 가고 머무를 因緣에 따라 한다. 이름은 難勝이니라” 하였다. 金庾信은 이 말을 듣고 그 노인이 非常한 사람인 줄 알고, 再拜하면서 앞으로 다가가서 말하기를 “저는 新羅사람입니다. 나라의 怨讐를 보니 마음이 아프고 머리가 아파서 이곳으로 와서 어르신네를 뵈기를 바랐었습니다. 엎드려 비옵건대 어르신네께서는 저의 정성을 불쌍히 여기사 저에게 方術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였다. 그러나 그 노인은 默黙히 말이 없었다. 金庾信은 눈물을 흘리면서 6·7次나 要請하니 노인은 말하기를, “너는 어리면서도 三國을 併合할 마음을 품고 있으니 또한 장하지 아니하냐?” 하고, 곧 秘法을 가르쳐 주고서 말하기를, “삼가서 망녕되이 傳하지 말라. 만약, 不義에다 이 方法을 利用하면 도리어 災殃을 받으리라” 하고서 가버렸다. 二里쯤 뒤따라 갔으나 그 노인은 간 곳이 없고, 다만 산위에 빛이 있는데 燦爛하기가 五色과 같았다.

建福 29年(612)에 이웃의 敵들이 屢번히 侵入하므로 金庾信은 더욱 壯한 마음이 품어올라 홀로 寶劍을 가지고 咽薄山의 깊은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 잠을 피우고 하늘에 告하며, 먼저번 中嶽에 있어서와 같이 盟誓하며 祈禱하니, 하늘에서 빛이 寶劍을 내리비추었다. 이와같이 3日을 지난날 밤에 虛星과 角星의 빛이 내리 비치더니 寶劍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公年十七歲，見高句麗百濟靺鞨侵軼國疆，慷慨有平寇賊之志，獨行入中嶽石窟，齋戒告天盟誓曰，「敵國無道，爲豺虎以擾我封場，略無寧歲。僕是一介微臣，不量材力，志清禍亂，惟天降監，假手於我。」居四日忽有一老人，被褐而來曰，「此處多毒蟲猛獸，可畏之地，貴少年爰來處何也？」答曰，「長者從何許來？尊名可得聞乎？」老人曰，「吾無所住，行止隨緣，名則難勝也。」公聞之，知非常人，再拜進曰，「僕新羅人也。見國之讐，痛心疾首。故來此，冀有所遇耳。伏乞長者憫我精誠，授之方術。」老人默然無言。公涕淚懇請不倦，至于六七。老人乃言曰，「子幼而有并三國之心，不亦壯乎？」乃授以秘法曰，「慎勿妄傳，若用之不義，反受其殃。」言訖而辭行二里許，追而望之不見，唯山上有光，燦爛若五色焉。

建福二十九年，鄰賊轉迫。公愈激壯心，獨携寶劍，入咽薄山深壑之中，燒香告天，祈祝若在中嶽，誓辭仍禱，天官垂光，降靈於寶劍。三日夜，虛角二星光芒赫然下垂，若動

搖然.¹⁹⁾

[9] 《三國遺事》에 또 이런 記錄이 있다.

唐나라 군사가 百濟를 平定하고 돌아간 후에 新羅王이 여러 將帥에게 命하여 百濟의 殘賊을 追捕케 하여 漢山城에 이르러 陣을 치니 高句麗·靺鞨의 두 나라 병사들이 포위하여 서로 싸우기를 5월 11日로부터 6월 22日에 이르렀으나 我軍편이 매우 위태하였다. 王이 듣고 여러 臣下에게 의논하기를 “장차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고 망설이면서 결정하지 못하였는데, 金庾信이 달려와서 아뢰기를, “일이 급하니 人力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神術을 써야 구할 것입니다” 하고, 곧 星浮山에 壇을 설치하고 神術을 닦는데, 갑자기 큰 독만한 光色이 壇上에서 나타나더니 별이 북쪽으로 날아갔다. 漢山城 안의 군사들은 救援兵이 오지 않는 것을 원망하며 서로 바라보고 울 뿐이었다. 敵이 급히 치려 할 때 홀연히 光彩가 南쪽 하늘 끝에서 날아와서 벽락불이 되어 적의 砲石 30여 곳을 쳐부수고 敵軍의 弓箭과 矛戟이 분쇄되고 軍士들이 모두 땅에 쓰러지더니 얼마 후에 깨어나서 모두 흩어져 돌아가고 우리 군사도 돌아왔다.

王師定百濟，既還之後，羅王命諸將，追捕百濟殘賊，屯次于漢山城。高麗靺鞨二國兵來圍之，相擊未解，自五月十一日，至六月二十二日，我兵危甚。王聞之，議群臣曰，「計將何出？」猶豫未決。庾信馳奏曰，「事急矣。人力不可及。唯神術可救」乃於星浮山，設壇修神術，忽有光耀加大，從壇上而出。乃星飛于北去。漢山城中士卒，怨救兵不至。相視哭泣而已。賊欲攻急，忽有光耀，從南天際來，成霹靂，擊碎砲石三十餘所，賊軍弓箭矛戟斃碎皆仆地，良久乃蘇，奔潰而歸，我軍乃還。²⁰⁾

[10] 《三國遺事》에 또 이런 記錄이 있다,

密本은 일찌기 金谷寺에 居住하였다. 또 金庾信은 일찌기 한 늙은 居士와 交分이 두터웠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居士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그때 金庾信 公의 親戚 秀天이 오랫동안 惡疾에 걸려 앓고 있었는데, 公이 居士를 보내어 診斷케 하였다. 마침 秀天의 친구 因惠師라는 이가 中岳에서 찾아와 居士를 보고 侮辱하며 말하기를, “그대의 外樣을 보니 奸邪한 사람 같은데 어찌 남의 病을 고치겠는가?” 하니, 居士가 말하기를, “나는 金公의 命을 받고 마치 못하여 왔을 뿐이오” 라고 말했다. 因惠가 말하기를, “너는 내 神通力을 좀 보아라” 하고 香爐를 받들어 香을 피우고 呪文을 외니 갑자기 五色 구름이 이마를 둘러싸고 天花가 흩어져 떨어졌다. 居士가 말하기를, “스님의 神通力은 정말 神奇합니다. 저도 변변치 못한 技術을 가지고 있으니 한번 試驗하여 보겠습니다. 원컨대 스님께서 잠깐 제 앞에 계십시오” 라고 하여 因惠

19) 金富軾, 《三國史記》卷第 41 列傳 第 1 金庾信 上條.

20) 一然, 《三國遺事》卷第 1 紀異 第 1 太宗春秋公條.

는 그대로 하였다. 居士가 손가락을 쫓기는 한 소리에 因惠는 空中에 높이 한길이나 거꾸로 올라가더니 얼마만에 서서히 내려와 머리가 땅에 박혀 말뚝과 같이 우뚝 섰다. 옆에 있던 사람이 밀고 잡아당겼으나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居士가 그곳을 떠나가 버리고 因惠는 거꾸로 박힌 채 날이 새었다. 이튿날 秀天이 사람을 시켜 金庾信에게 알렸더니, 공이 다시 居士를 보내어 풀어 주게 하였다. 그 후 因惠는 다시 재주를 팔지 못하였다.

本嘗住金谷寺，又金庾信嘗與一老居士交厚，世人不知其何人。于時公之戚秀天，久染惡疾。公遣居士診衛，適有秀天之舊，名因惠師。自中岳來訪之，見居士而慢侮之曰，「相汝形儀，邪佞人也。何得理人之疾？」居士曰，「我受金公命，不獲已爾」惠曰，「汝見我神通」乃奉爐咒香，俄頃五色雲施遶頂上，天花散落。士曰，「和尚通力不可思議。弟子亦有拙技，請試之。願師乍立於前。」惠從之，士彈指一聲，惠倒迸於空，高一丈許，良久徐徐倒下，頭卓地，屹然如植槩，旁人推挽之不動。士出去，惠猶倒卓達曙，明日秀天使扣於金公，公遣居士往救，乃解。因惠不復賣技。²¹⁾

[11] 金庾信의 玄孫 金巖은 天性이 聰明하고 敏捷하며 方術을 좋아했다. 《三國史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金庾信의 嫡孫 金允中의 庶孫인 金巖은 天性이 聰明하고 敏捷하며, 方術을 좋아하였다. 그는 젊었을 때에 伊飡이 되어 唐으로 들어가서 宿衛하였는데, 그 동안 틈틈이 스승에게 나아가서 陰陽家의 術法을 배웠다. 그는 한 모서리를 들으면 세 모서리를 깨달았다. 그는 스스로 遁甲立成法을 지어 그 스승에게 보이니, 스승은 놀라면서 말하기를, “나는 자네의 明哲하고 通達함이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른 줄을 헤아리지 못하였네” 하며, 뒤로부터는 감히 제자로서 待遇하지 않았다. 그는 惠恭王(唐 代宗 大曆) 때에 歸國하여 司天大博士가 되었고, 良州(梁山)·康州(晉州)·漢州(廣州)의 三州의 太守를 지내고 다시 執事侍郎·涇江鎮(平壤)頭上이 되었는데, 그는 이르는 곳마다 극진히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公務의 餘暇에는 六陣兵法을 가르쳤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便利하게 여겼다. 그런데 어느 해에 蝗蟲이 서쪽으로부터 涇江의 境界에 날아 들어와서 굶길거리며 들판을 덮으므로 백성들은 크게 근심하였는데, 金巖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향불을 피우고 하늘에 祈禱를 올리니, 갑자기 폭풍우가 크게 일어나며 蝗蟲들이 모조리 죽어 버렸다.

允中庶孫巖，性聰敏，好習方術，少壯爲伊飡，入唐宿衛，間就師學陰陽家法。聞一隅則反之以三隅。自述遁甲立成之法，呈於其師。師憮然曰，「不圖吾子之明達至於此也」從是而後，不敢以弟子待之。大曆中，還國爲司天大博士，曆良康漢三州太守，復爲執事侍郎·涇江鎮頭上，所至盡心撫字。三務之餘，教之以六陣兵法，人皆便之。嘗有蝗蟲，自西入涇江之界，巖然蔽野，百姓憂懼。巖登山頂，焚香所天，忽風雲大作。²²⁾

21) 一然, 《三國遺事》卷第 5, 神呪 第 6 密本摧邪條.

22) 金富軾, 《三國史記》卷第 43, 列傳 第 3 金庾信 下條.

[12] 《三國遺事》에 또 仙桃聖母의 神仙 故事가 실려 있다.

眞平王 때 智惠라는 比丘尼가 있었는데 어진 行實이 많았다. 安興寺에 살면서 새로 佛殿을 修理하러 했으나 힘이 모자랐다. 그때 꿈에 한 仙女가 어여쁜 모습에 구슬로 머리를 裝飾하고 와서 慰勞하며 말했다.

“나는 仙桃山 神母이다. 네가 佛殿을 修理하러 하는 것을 기뻐하여 金 10斤을 施主하여 돕고자 하니, 내 자리 밑에서 金を 꺼내서 主尊三像을 裝飾하고 벽 위에는 53佛과 六類聖衆과 여러 天神과 널리 五岳의 神君을 그리고, 해마다 봄 가을의 10일에 善男善女를 모아 一切 衆生을 위하여 占察法會를 베풀어 一定한 規定을 삼아라”

하였다. 智惠가 놀라 깨어 무리를 데리고 神廟 자리 밑으로 가서 黃金 160냥을 과내어(불전 修理의) 일을 이루었는데 모두가 神母가 指導한 바에 따랐다. 지금 그 史蹟은 있으나 法事는 廢止되었다.

神母는 본시 中國 帝室의 딸로 이름을 娑蘇라 하였다. 일찌기 神仙의 術法을 배워 新羅에 와서 오랫동안 돌아가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아버지인 皇帝는 便紙를 소리개 밭에 매어 부쳐 보냈다.

“소리개가 머무는 곳에 집을 지어라.” 娑蘇가 便紙를 보고 소리개를 놓으니 이 산에 날아와 멈추므로 드디어 거기에 살며 地仙이 되었다. 그래서 산이름을 西蔭山이라고 하였다. 神母는 오랫동안 이 산에 雄據하며 나라를 保護하였는데 神靈스러운 일이 매우 많았다. 그래서 나라가 선 以來로 恒常 三祀의 하나로 쳤고 그 차례도 여러 望의 위에 있었다.

第 54代 景明왕이 매 사냥을 좋아하여 일찌기 이 산에 올라 매를 놓아 잃어 버리고는 神母에게 祈禱하였다.

“만일 매를 다시 얻으면 벼슬에 封하겠읍니다”

그러자 매가 갑자기 날아와서 걸상 위에 앉았으므로 大王의 벼슬에 封하였다. (娑蘇가) 처음 辰韓에 오자 聖子를 낳아 東國의 처음 임금이 되었으니, 아마 赫居世와 閔英의 두 聖人을 낳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鷄龍·鷄林·白馬 등으로 일컬었으니 鷄는 西쪽에 속하는 까닭이다. 일찌기 神母는 諸天의 仙女에게 비단을 짜게 하여 붉은 색을 물들여 韓服을 만들어 男便에게 주었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神秘한 靈驗을 알았다.

또 國史에 史臣이 말하기를 金富弼이 政和 年間に 宋나라에 使臣으로 가서 佑神館에 參拜하니 一堂에 女仙의 像이 安置되어 있었다.

館伴學士 王黼가,

“이것은 貴國의 神인데 공은 아느냐?”

하면서 說明하기를,

“옛날에 中國 帝室의 딸이 바다에 떠서 辰韓에 이르러 아들을 낳으니 新羅의 始祖가 되었다. 그녀는 地仙이 되어 仙桃山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그 像이다”

라고 하였다. 또 宋나라 使臣 王襄이 高麗에 와서 東神聖母를 祭祀지낼 때 그 祭文에,

“어진 사람을 낳아 나라를 始作하였다”는 句節이 있다. 이제(娑蘇가) 金을 施主하여 부처를 받들게 하고, 衆生을 爲하여 香火를 열고 苦海를 건널 나무를 만들었으니, 어찌 한갓 오래 사는 術法만 배워 아득한 속에만 사로잡힌 것이라?

讚하노니,

“西蔦에 來往한 지 몇 十年이 지났는고?

天帝子를 불러 神仙의 옷을 찢도다.

長生術도 靈異함이 없지 않았는데,

부처를 뵈고 玉皇이 되었다.”

眞平王朝, 有比丘尼名智惠, 多賢行. 住安興寺, 擬新修佛殿而力未也, 夢一女仙風儀嫵約, 珠翠飾鬢, 來慰曰, 我是仙桃山神母也. 喜汝欲修佛殿, 願施金十斤以助之. 宜取金於子座下, 粧點主尊三像, 壁上繪五十三佛, 六類聖衆, 及諸天神, 五岳神君, 每春秋二季之十日, 叢會善男善女, 廣爲一切含靈, 設占察法會, 以爲恒規. 惠乃驚覺, 率徒往神祠座下, 掘得黃金一百六十兩, 克就乃功, 皆依神母所諭. 其事唯存, 而法事廢矣. 神母本中國帝室之女, 名娑蘇, 早得神仙之術, 歸止海東, 久而不還. 父皇寄書繫足云, 「隨蔦所止爲家」 蘇得書放蔦, 飛到此山而止. 遂來宅爲地仙. 故名西蔦山, 神母久據茲山, 鎮祐邦國, 靈異甚多, 有國已來, 常爲三祀之一. 秩在群望之上. 第五十四景明王好使鷹, 嘗登此放鷹而失之, 禱於神母曰, 「若得鷹, 當封爵.」 俄而鷹飛來止机上, 因封爵大王焉. 其始到辰韓也, 生聖子, 爲東國始君, 蓋赫居·闕英二聖之所自也. 故稱鷄籠·鷄林·白馬等, 鷄屬西故也. 嘗使諸天仙織羅, 緋染作朝衣, 贈其夫, 國人因此始知神驗. 又國史, 史臣曰, 「軾政和中, 嘗奉使入宋, 詣佑神館. 有一堂, 設女仙像, 館伴學士王黼曰, 『此是貴國之神, 公知之乎?』 遂言曰, 『古有中國帝室之女, 泛海抵辰韓, 生子爲海東始祖, 女爲地仙, 長在仙桃山, 此其像也』 又大宋國使王襄到我朝, 祭東神聖母女, 有娠賢肇邦之句. 今能施金奉佛, 爲含生開香火, 作津梁, 豈徒學長生而囿於溟濛者哉? 讚曰 「來宅四蔦幾一霜, 招呼帝子織霓裳, 長生未必無生異, 故謁金仙作玉皇.²³⁾

이 仙桃山 地仙의 이야기는 《三國史記》 新羅本紀 敬順王條에도 보이는데, 거기에는 內容이 簡單하면서도 佛敎의 이야기는 곁들여지지 않았다.

[13] 新羅 사람인 大世가 求仙하는 內容이 《三國史記》에 실려 있다.

眞平王 9年(587) 7월에 大世와 仇柴 두 사람이 바다로 달아났다. 大世는 奈勿王의 7世孫으로 伊飡冬臺의 아들인데, 그는 資質이 俊逸하여 젊어서부터 海外에 뜻을 두고 중 淡水와 더불어 사귀고 놀면서 말하기를,

“이 新羅의 山谷間에 살고 있으면서 一平生을 마친다는 것은 이 어찌 연못에 든 고기나 장에 갇힌 새가 滄海가 넓고 크고 山林이 넓고 閑暇로움을 알지 못하는 것과 닮음이 있겠는가? 내 將次 때를 타고 넓은 바다로 떠서 吳·越에 이르러 훌륭한 스승을 찾고 또 名山을 찾아 道를 닦으려 한다. 이렇게 하여 만약 凡人의 몸을 벗

23) 一然, 《三國遺事》卷第 5, 感通 第 7 仙桃聖母隨喜佛事條.

어나서 神仙의 道를 배울 것 같으면, 飄然히 바람을 타고 沈寥한 하늘 밖으로 날아 갈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天下의 奇異한 遊覽이며 壯觀일 것이다. 그대는 能히 나의 뜻을 좇겠는가?”

하였으나, 淡水는 이를 좋아하지 않으므로 大世는 그를 물리치고 다른 벗을 구하였는데, 마침 仇柴이란 사람을 만났다. 仇柴은 사람됨이 志操가 있고 潔白하며 奇異한 節介가 있었으므로, 드디어 그와 더불어 南山의 절에서 놀았다. 그런데 갑자기 風雨가 몰아쳐서 나뭇잎이 떨어지고 빗물이 풀에 가득 고이니, 大世는 仇柴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대와 함께 西遊할 뜻이 있다. 우리들이 지금 저 나뭇잎을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띄워 놓고 먼저 가고 뒤에 가는 것을 점검해 보자”

하고 이를 試驗하니 大世가 만든 나뭇잎 배가 문득 앞서 닿으니 大世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먼저 가겠구나”

하였는데, 仇柴은 발끈하여 일어나며 말하기를,

“내 또한 사나이다. 어찌 내 홀로인들 못갈까 보냐?”

하였다. 大世는 그가 可히 벗될 것을 알고서 몰래 그 뜻을 말하니, 仇柴이 말하기를,

“이는 나의 願하는 것이다”

하므로, 드디어는 서로 벗이 되어 南海로부터 배를 타고 가버렸는데, 뒤에 그들의 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

九年秋七月, 大世·仇柴二人適海. 大世奈勿王七世孫, 伊淦多臺之子也. 資俊逸, 少有方外志, 與交遊僧淡水曰, 「在此新羅山谷之間, 以終一生, 則何異池魚籠鳥, 不知滄海之浩大, 山林之寬閑乎? 吾將乘桴泛海, 以至吳越, 侵尋追師, 訪道於名山. 若凡骨可換, 神仙可學, 則飄然乘風於沈寥之表, 此天下之奇遊壯觀也. 子能從我乎?」淡水不肯, 大世退而求友. 適遇仇柴者, 耿介有奇節, 遂與之遊南山之寺, 忽風雨, 落葉泛於庭潦, 大世與仇柴言曰, 「吾有與君西遊之志, 今各取一葉爲之舟, 以觀其行之先後」俄而大世之葉在前, 大世笑曰, 「吾其行乎」仇柴勃然曰, 「予亦男兒也, 豈猶不能乎?」大世知其可與, 密言其志. 仇柴曰, 「吾願也」遂相與爲友, 自南海乘舟而去, 後不知其所往.²⁴⁾

[14] 《三國史記》에는 또 仙靈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新羅 實聖尼師今 22年(413) 八月에 구름이 狼山에 일어났는데 樓閣과 같이 보이고 香氣가 매우 盛하게 퍼지며 오랫동안이나 없어지지 않았다. 王은 君臣들에게 말하기를, “이는 반드시 하늘에서 仙靈이 내려와서 노는 것이니 그곳은 응당 福地일 것이다.” 하고, 그 뒤부터는 누구나 그곳에서 나무를 베지 않도록 禁하였다.

二十二年秋八月, 雲起狼山, 望之如樓閣, 香氣郁然, 久而不歇. 王謂是必仙靈降遊, 應是福地. 從此後禁人斬伐樹木.²⁵⁾

24) 金富軾, 《三國史記》卷第 6, 新羅本紀 第 4 眞平王條.

25) 金富軾, 《三國史記》卷第 3, 新羅本紀 第 3 實聖尼師今條.

88 道教와 韓國思想

이상이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보이는 新羅의 道家·道教 및 神仙 思想에 관한 기록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新羅에도 738년에 唐나라로부터 老子《道德經》이 들어온 이후 科學의 과목으로 이용되기도 하면서 道家 思想은 널리 유행되었었고, 花郎 精神에도 道教의 思想이 깃들여져 道教는 번창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新羅의 道教는 종교적 수단으로보다는 神仙 思想으로 발전하였으니 金庾信, 金巖 등의 神道術의 기록을 볼 수가 있고, 또 仙桃山 地仙이나 狼山 仙靈 等の 神仙 故事도 널리 유포되었었던 것 같다.

또 新羅에서는 花郎을 國仙이라고 불렀고, 永郎·述郎·南石行·安詳 등 新羅 四仙의 전설과 그들의 遺蹟地가 오늘날까지 남아 전하는 것으로 보아, 新羅의 神仙 思想은 宏壯한 세력으로 퍼졌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신라는 道家·道教思想이 들어와 크게 발전하였으되, 특히 求仙·方術의 면으로 매우 기울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Ⅲ. 結 論

또 《三國遺事》에는 中國 道教史에 대해서도 언급한 곳이 있다.

晉 末期에 北方의 匈奴 赫運勃勃(五胡 16國 中的 하나인 夏의 世祖武烈帝)이 關中을 擊破하고 無數한 사람을 殺戮하였다. 이때에 曇始도 禍를 당했으나 칼날이 그를 傷하지 못하매 勃勃이 嘆息하고 널리 僧侶들을 놓아 주고 하나도 죽이지 않았다. 曇始는 이에 山澤으로 도망하여 頭陀의 行을 닦았다. 拓拔燾(北朝 北魏의 太武帝)가 다시 長安을 쳐서 이기고 關洛에서 威嚴을 떨칠 때에 博陵에 崔皓란 者가 있어 左道(道教를 말함)를 조금 學習하여 佛敎를 猜忌하고 미워하더니 이미 地位가 輔에 올라 燾의 尊信하는 바 되자, 이에 天師 寇謙之와 함께 燾를 달래기를,

“佛敎는 無益하고 民生에 有害하다”

고 하여 廢止하도록 勸하였다 한다. 太平 末年에 曇始가 바야흐로 燾를 歸化시킬 때가 온 것을 알고 이에 元會日에 忽然 지팡이를 짚고 宮門에 이르니 燾가 듣고 베어 죽이라 命하였다. 여러 번 베어도 傷하지 아니하므로 燾가 손수 베었다. 그러나 또한 傷하지 않는지라 北國에 기르고 있는 범[虎]에게 주었더니 범도 敢히 接近하지 못하였다. 燾가 크게 부끄럽고 두렵게 여기더니 드디어 熱病에 걸렸다. 崔皓와 寇謙之 두 사람도 차례로 惡病에 걸리었다. 燾는 이 罪科가 그들(崔·寇 2人) 때문이라 하여 이에 두 門族을 죽여 없애고 나라 안에 宜諱하여 佛法을 크게 伸張하였는데 以後 曇始

의 죽은 곳을 알 수 없었다 한다.

晋末，朔方匈奴赫連勃勃，破獲關中，斬戮無數。時始亦遇害，刀不能傷，勃勃嗟嘆之。普赦沙門，悉皆不殺。始於是潛遁山澤，修頭陁行。拓拔燾復尅長安，擅威關洛，時有博陵崔皓，小習左道，猜嫉釋教，既位居爲輔，爲燾所信，乃與天師寇謙之說燾，「佛教無益，有傷民利」勸令廢之云云。大平之末，始方知燾將化時至，乃以元會日，忽杖錫到宮門，燾聞令斬之，屢不傷，燾自斬之亦無傷，飼北園所養虎，亦不敢近。燾大生慚懼，遂感痼疾。崔·寇二人，相次發惡病。燾以過由於彼，於是誅滅二家門族，宣下國中，大弘佛法，始後不知所終。²⁶⁾

그 후 大宋 徽宗朝에 이르러 左道를 崇奉하니, 그때 나라 사람들이 圖讖을 퍼뜨려 말하기를,

“金人이 나라를 滅亡시킨다”

고 하였다. 黃巾의 무리들이 日官을 움직이어서 아뢰기를,

“(圖讖의 이른바) 金人이란 것은 佛敎를 이룸이니 將次 國家에 不利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로 인하여) 朝廷의 議論은 將次 釋氏 佛敎를 破斥하고 모든 僧侶를 坑殺하고 經典을 불지르고, 따로 조그만 배를 만들어 佛牙를 실어 大海에 띄워 어디든지 가게 하려고 하였다.

後至大宋徽宗朝，崇奉左道，時國人傳圖讖曰，「金人敗國」黃巾之徒，諷日官，奏曰「金人者佛敎之謂也。將不利於國家」議將破滅釋氏，坑諸沙門，焚燒經典，而別造小舡，載佛牙大海。²⁷⁾

물론 이 두 기록은 직접 우리 나라 三國時代의 이야기는 아니다. 앞의 것은 저 유명한 北魏의 武帝가 佛敎를 탄압했던 佛敎 受難史의 한 장면이고, 뒤의 것도 宋나라 때 道教 信奉의 기록이다. 또 이 기록은 고려 때의 名僧 一然이 佛敎의 優勢를 드러내고자 인용한 道教史의 단편적인 기록이므로 轉載·引用할 가치는 없다고 하겠으나, 一然이 《三國遺事》를 기록할 때, 三國時代 佛敎와 관련시켜 적어 놓은 道教 관계 기록이므로 인용해 보는 것이다. 곧 中國 道教史의 단편적인 기록일망정 이렇게 昭詳하게 알고 있음은 그만큼 道教에 관심이 많았음을 반증하는 좋은 자료라 할 것이다.

요컨대 中國 諸子百家 중의 道家思想과 後漢末에 발생한 道教는 고구려·백제·신라로 계속하여 들어와 널리 퍼져 한때는 佛敎보다 우세했을 것으로 여

26) 一然, 《三國遺事》卷第 2, 興法 第 3 阿道基羅條.

27) 一然, 《三國遺事》卷第 3, 塔像 第 4 前後所藏舍利條.

겨진다. 그러나 儒佛의 세력에 밀려 高麗·朝鮮朝로 내려오면서 겨우 명맥을 이어 내려오고 동시에 민속화되고 말았다.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를 통하여 볼 때 고구려는 道敎 수입의 기록이 확실하게 남아 있고, 百濟와 新羅는 道家思想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으나 道敎 수입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간간이 道敎·道流의 이야기가 남아 있음으로 보아 百濟·新羅에도 道敎가 들어왔었음은 확실하다. 다만 新羅의 道敎는 神仙 方術의 면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新羅의 이 神仙思想을 道敎의 일면으로 볼 것인가, 道敎 발생 이전부터 있었던 神仙思想의 유입 발전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古來로 우리 나라에는 神道와 仙道가 일찍부터 있어 檀君神話, 金首露王과 許王妃 結緣 傳說, 三神山·不老草, 徐市題名刻字 등의 神仙 故事와 전설이 많았음을 볼 때, 新羅의 神仙思想은 재래의 神仙思想의 발전으로 보아야 할 것도 같다.

《漢書》〈藝文志〉에도 儒家·道家·陰陽家·法家·名家·墨家·縱橫家·雜家·農家·小說家의 10家 이외에 權謀者·形勢者·陰陽者·兵家者·天文者·五行者·蓍龜者·雜占者·刑法者·醫經者·經方者·房中者·神仙者·方技者를 들어 따로 神仙者를 독립시켜 놓았다.

이로 볼 때 신라의 神仙思想은 재래의 神仙思想에다 道敎의 仙家派 思想이 융합되어 더욱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道敎思想만으로 좁혀 보면, 道敎는 唐나라를 통하여 우리 나라 三國으로 들어와 발전하면서 고려를 지나 조선조 중기 趙光祖의 건의에 따라 朝廷에서 昭格署를 폐할 때까지는 국가적 행사로 명맥이 이어졌으며, 儒佛에 눌려 빛을 보지 못하고 民俗 또는 巫俗化되었다고 보아야겠다.

參 考 文 獻

- 李能和. 《朝鮮道教史》. 東國文化社, 1959
- 李鍾設譯. 《朝鮮道教史》. 普成文化社, 1977
- 柳東植.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 延世大 出版部, 1975
- 李能和. 《百教會通》. 寶蓮閣, 1973
- 金鍾權譯. 《三國史記》. 大洋書籍, 1972
- 李丙燾譯. 《三國遺事》. 大洋書籍, 1972
- 傅勤家. 《中國道教史》. 商務印書館, 1972
- 傅勤家. 《道教史概論》. 商務印書館, 1968
- 小柳司氣太著·陳斌和譯. 《道教概說》. 商務印書館, 1960
- 宋佩韋編. 《東漢宗教史》. 商務印書館, 1967
- 周紹賢. 《道教與神仙》. 中華書局, 1974
- 孫克寬. 《宋元道教之發展》. 私立東海大學, 1975
- 孫克寬. 《元代道教之發展》. 私立東海大學, 1968
- 嚴靈峯. 《老莊研究》. 中華書局, 1966
- 胡哲敷. 《老莊哲學》. 中華書局, 1975
- 孫成秋. 《先秦道家思想研究》. 中華書局, 1970
- 嚴靈峯 編著. 《道家四子新編》. 商務印書館, 1968
- 津田左右吉. 《道家的思想と其の展開》. 岩波書店, 1938
- 幸田露伴. 《道教思想》. 角川書店, 1957
- 赤塚忠(外). 《東洋思想》. 東京大學 出版會, 1967
- 福井康順. 《道教の基礎的研究》. 書籍文物流通會, 1952
- 酒井忠夫. 《善書の研究》. 圖書刊行會, 1967
- 塚本善隆. 《魏書釋老志の研究》. 大東出版社, 1970
- 下出積與. 《道教》. 評論社, 1971
- 道端良秀. 《中國佛教史》. 法藏館, 1975